

【논문】

## 흡적 설명이론들, 그리고 이들의 형이상학적 전제

이 재 호

【주제분류】 형이상학, 과학철학

【주요어】 설명, 흡적 설명이론, 흡적 형이상학, 필연적 연결

【요약문】 필자가 본 논문에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20세기 후반부에 영미 철학계에서 제안된 대부분의 주요 설명 이론들이 필자가 “흡적 설명이론” 또는 “준흡적 설명이론”이라고 부르는 이론에 해당되며, 제안된 흡적 설명이론들, 그리고 제안될 법한 준흡적 설명이론의 실재론화된 형태들은 모두 특정 형이상학, 즉 흡적 형이상학을 암묵적으로 전제한다는 것이다. 우선 필자는 “흡적 설명이론”과 “준흡적 설명이론”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런 이론들이 왜 위장된 형이상학적 이론들인지를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반흡적 설명이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론들은 이런 암묵적인 형이상학적 전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인다.

본 논문은 일련의 연속된 논문을 통해서 진행될 프로젝트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필자는 20세기 후반기 이래로 영미 분석철학의 전통 속에서 개발된 대부분의 주요 설명 이론들이 흡적 설명이론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것과, 흡적 설명이론은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sup>1)</sup>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흡적 설명이론이 **특정한 형이상학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이론이라고 주장할 것이다.<sup>2)</sup> 이 작업

1) 이 표현은,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사실 엄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2절에서 “흡적 설명이론”과 “준흡적 설명이론”이 정교하게 정의되기 전까지는 이런 엄밀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2) “전제하고 있다”라는 말은 사실 필자의 의도에 비추어 보아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필자가 “특정한 형이상학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필자가 의미하는 것은 “특

은 크게 봐서 세 개의 단계를 갖고 있다. 우선 현존하는 주요 설명이론들이 대부분 “흠적 설명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고 다음으로 흠적 설명이론들이 특정한 형이상학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특정한 형이상학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 가운데 첫 번째 단계(1절과 2절)와 두 번째 단계(3절)에 초점을 맞추며 세 번째 단계는 이 논문의 후속 논문들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 I. 설명이론의 구조와 “흠적 설명이론”의 정의가 충족해야 할 조건들

전술한 대로 본 논문에서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영미 분석철학적 전통 하에서 지금까지 제안된 주요 설명이론들이 대부분 흠적 설명이론이며 흠적 설명이론들은 특정한 형이상학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흠적 설명이론”이라는 것은 영미 철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며 따라서 어떤 관례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명확히 정의될 필요가 있으며 이 정의는 이 용어의 철학적 유용성을 드러내야 한다. 필자는 다음 절(2절)에서, 필자가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것에 비추어 가장 만족스럽다고 생각되는 이 용어의 정의를 제시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본격적인 정의에 앞서, “흠적 설명이론”의 정의가 충족해야 할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필자는 “흠적 설명이론”이 만족스럽게 정의되기 위해서 최소한 다음의 세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흠적 설명이론”의 외연은 너무 작아서도 또 너무 커서도 안 된다.

---

정한 형이상학에 대해서 commitment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의 “commitment”에 대한 적절한 번역어가 없기 때문에 필자는 “전제한다”라는 다소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쓴다.

- (2) 흠적 설명이론은 흠의 철학과 어떤 연결을 가져야 한다.
- (3) “흠적 설명이론”은 설명 이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특정을 통해서 정의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이 왜 충족되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흠적 설명이론”을 지금까지 진지하게 주장된 어떤 설명 이론도, 그리고 진지하게 고려될 수 있는 어떤 이론도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방식으로 정의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정의에 따를 경우 “흠적 설명이론”의 외연은 공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된 “흠적 설명이론”을 공격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흠적 설명이론을 공격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유의미한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흠적 설명이론”이 그것의 외연이 지금까지 개발된 또는 앞으로 개발될 법한 설명이론들 가운데 상당수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 용어는 너무 큰 외연을 가져도 안 된다. 만약 흠적 설명이론을 너무 느슨하게 정의해서 사실상 모든 기존의 그리고 앞으로 제안될 법한 설명이론이 그 외연에 포함되게 된다면, 흠적 설명이론에 대한 공격은 설명 이론에 대한 과격한 회의주의 이상은 될 수 없게 될 것이다. 필자가 흠적 설명이론을 공격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안된 주요 이론들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만족스런 설명이론을 제안하기 위해서이지 설명이론의 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필자가 아는 한 흠 자신이 어떤 체계적 설명이론을 제시한 적은 없으므로 두 번째 조건이 왜 필요한지도 자명하다. “**흠적 설명이론**”이 **흠의** 설명이론으로 정의될 수는 없으므로 왜 어떤 다른 철학자들이 제시한 또는 제시할 설명이론들이 정당하게 흠적 설명이론으로 불릴 수 있는지 설명 가능해야 한다. 앞으로 논증되겠지만 필자가 흠적 설명이론들을 “**흠적 설명이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흠적 형이상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흠적 형이상학**”이라는 말로 필자는 대략적으로 D. 루이스가 “**흠적 수반 (Humean Supervenience)**”이라고 부른 논제에 동조하는 형이상학적 그림을 의미한다.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흠적 수반 논제를 설명한다.

흠적 수반이라는 이름은 위대한 필연적 연결의 거부자에 대해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붙여졌다. 이것은 세계 속에는 국지적인 특정한 사실들의 거대한 모자이크만이 존재한다는, 즉 하나의 작은 사실 옆에 또 다른 작은 사실들이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국지적인 사실들이 정신적이라는 것은 이 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기하학을 갖는다. 즉, 점들 사이의 시공간적인 거리라는 외적 관계들의 시스템을 갖는다. ... 그리고 이 점들에서 우리는 국소적인 성질들을 갖는다. 이 성질들은 완벽하게 자연적이고 내재적인 속성들이며 예화되기 위해서 하나의 점보다 더 큰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짧게 말해서, 우리는 성질의 배열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게 다다. 성질의 배열에서의 차이 없이는 어떤 차이도 없다. 모든 다른 것들은 이 배열에 수반한다.<sup>3)</sup>

흠적 수반 논제는 다양한 논제들의 연언이고 이 논제는 루이스적인 형태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sup>4)</sup> 하지만 필자가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그리고 어떤 형태의 흠적 수반 논제이건 간에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을 논제는 다음의 두 개다. 우선, 흠적 수반논제는 앞으로 필자가 NNC (No Necessary Connection)라고 부를 논제를 포함한다. NNC에 따르면, 현실세계 안에서, 전적으로 구분되는 특정한 근원적인 사실들 (필자는 앞으로 이런 사실들을 “흠적 사실”이라고 부를 것이다) 사이에는 어떤 필연적 연결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로, 흠적 수반 논제는 앞으로 필자가 SHF (Supervenience on Humean Facts)라고 부를 논제를 포함한다. 이 논제에 따르면 흠적 사실들을 제외한 이 세계안의 모든 사실들, 예컨대, 인과, 법칙, 객관적 확률등에 관한 사실들은 모두 흠적 사실들의 총체적 배열에 수반한다.

루이스의 흠적 수반 논제는 그 정신에 있어서 실재론적, 물리주의적, 그리고 환원주의적이다. 특히 흠적 수반논제는 (법칙, 인과, 확률, 설명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양상적 개념의 비양상적 개념으로의 환원을 그 기본정신으로 갖는다. 필자는 흠적 수반논제에 대해 동조하는 형이상학적

3) David Lewis, (1986) ix.

4) 루이스적인 흠적 수반 논제의 변형대들을 위해서는 다음을 볼 것. Barry Loewer, (1996); John Earman and John T. Roberts, (2005); John Earman and John T. Roberts, (2005).

그림으로 흡적 형이상학을 성격규정하고 흡적 설명이론이 이 형이상학적 그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양상 개념들에 대한 환원주의적 접근이 갖는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조건은 “흡적 설명이론”이 설명이론의 (이론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에 관한 어떤 중요한 특징을 통해서 정의될 것을 요구하는데, 이 조건 역시 자명하다. 예를 들어 흡이 살아있던 시기에 제안된 설명이론을 “흡적 설명이론”이라고 정의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럴 경우 이 용어는 명확한 정의를 갖기는 하겠지만 철학적으로 유용한 용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설명 이론이 흡이 살아있을 때 제안되었다는 특징은 그 이론의 역사적 정체성(?)에 있어서 어떤 중요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의 이론적 정체성에 있어서 어떤 중요성도 갖지 않는 특징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조건은 설명이론의 정체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는데 이 연구는 짧은 지면을 통해서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필자는 다른 곳에서 이 연구를 이미 수행한 바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최대한 간략히 소개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다.<sup>5)</sup>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설명이론은 최소한 다음의 네 개의 차원을 갖는다.

- (a)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
- (b) 설명적 이해 또는 지식의 본질에 대한 개념
- (c) 설명의 화용론적 차원에 대한 분석
- (d) 설명의 인식론적 차원에 대한 분석.

여기서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앞으로 “M”으로 줄여 부름)”은 대략적으로 말해서 어떤 관계가 성립할 경우 그 관계가 적절한 화용론적 문맥과 인식적 상황 하에서 만족스런 설명적 관계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 주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2008년 2월의 승례문 화재를 당시 주변 공기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

5) 필자의 연구를 위해선 다음을 볼 것. 이재호, (2012). 이후에 나오는 설명 이론의 구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고 느끼는 독자들에게는 이 논문을 읽을 것을 권한다.

실을 가지고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반해서 산소가 있어서는 안되는 실험실 안에서 발생한 화재는 (어떤 이유에선가) 그 실험실 안의 공기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경우에 있어서 산소의 존재와 화재의 발생 사이의 관계는 (이들을 각각 R1과 R2라고 하자) 자체로는 상당히 유사하다. 우리가 설명적 관계의 핵심을 인과관계로 보긴 아니면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로 보긴, 아니면 어떤 다른 관계로 보긴 R1과 R2는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 R1의 관계항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R2의 관계항들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고 R1의 관계항들 사이에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가 있다면 R2의 관계항들 사이에도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두 “설명” 사이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차이는 *문맥적* 차이이다. R1이 논의되고 있는 문맥에서 산소의 존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반면 R2가 논의되고 있는 문맥에서 산소의 존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가 된다. 이는 우리가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M)과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가 실제로 만족스런 설명적 관계가 되게 만드는 문맥 의존적 요소에 대한 분석, 즉 설명의 화용론적 차원에 대한 분석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김재권이 강조하듯이 설명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인식론적인 개념이며 따라서 이해 또는 지식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sup>6)</sup> 설명(explanation)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 즉 설명하기(explaining)와 개념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설명하기는 어떤 종류의 이해를 산출하기 위한 행위이다. 그리고 그런 이해를 산출하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설명적 지식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X가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왜 X가 발생했는지를 **알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식이 어떤 종류의 지식인지를 알 필요가 있으며 어떤 관계가 잠재적으로 그런 종류의 지식을 줄 수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후자의 문제, 즉 어떤 관계가 잠재적으로 그런 종류의 지식을 줄 수 있는지의

6) J. Kim, (1987) 228. 페이지수는 다음의 선집에서의 페이지수를 따름. David-Hillel Ruben, (1993).

문제에 대한 대답이 M을 통해서 주어진다. 반대로 전자의 문제, 즉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지식이 어떤 종류의 지식인지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설명적 이해 또는 지식의 본질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주어진다. 예를 들어 만약 X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식이 X의 발생의 원인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설명적 지식의 본질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아직 어떤 관계가 구체적으로 잠재적 설명적 관계로서의 인과 관계를 구성하는 지에 대한 지식은 갖지 못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루이스를 따라서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가 바로 인과 관계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잠재적 설명적 관계에 대한 모델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관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명이 이해(또는 지식)를 산출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설명적 관계는 필연적으로 인식론적 차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설명에 동원되는 설명항 사건, 그리고 설명항 사건과 피설명항 사건 사이의 잠재적 설명적 관계는 인식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인식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다면 이들을 동원하는 “설명”은 어떤 지식도 산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008년 2월의 승례문 화재가 한국 사회의 타락에 경고를 주기 위한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야기되었다고 주장했다고 하자. 이 사람이 제공하는 “설명”은 어떤 종류의 설명적 지식도 산출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뜻과 화재 사이에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 예컨대 인과 관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설명 그것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것은 인식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하느님의 뜻과 승례문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받아들일 증거는 더더욱 갖고 있지 않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나 이들 네 개의 차원들 가운데 처음 두 개, 즉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M)과 설명적 이해 또는 설명적 지식의 본질에 대한 개념만이 진정으로 어떤 설명 이론의 정체성을 결정해 준

다. 설명의 화용론적 측면은 루이스가 잘 지적하듯이 굳이 설명의 본질을 연구하는 사람이 따로 고심해야 할 내용은 아니다.<sup>7)</sup> 그것은 복잡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모든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위의 승레문 사례를 생각해 보라. (공기 중 산소의 존재와 같이) 문맥 속에서 이미 전제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정보의 제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설명과 관련해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설명적 정보의 본질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 현상에 대해서 특별한 고심을 해야 할 필요도 없다. 마찬가지로 설명의 인식론적 차원의 문제도 부차적인 문제이다. 설명적 관계나 설명항이 언제 우리에게 인식적으로 접근 가능한지의 문제는 인식론 또는 심리학 일반의 문제이며 굳이 설명의 본질을 연구하는 사람이 고심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20세기 후반기에 제안된 주요 설명이론들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햐펠의 D-N (I-S) 모델

- 설명적 지식의 본질: 설명은 법칙적 예측 가능성(nomic expectability)을 가질 때 발생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설명적 지식은 특수한 종류의 예측적 지식이다.<sup>8)</sup>
-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 어떤 사건 E1은 다른 사건 E2에 대해서 E1이 D-N (I-S) 추론의 전제에 등장하고 E2가 D-N (I-S) 추론의 결론이 될 경우 오직 그 경우에 한해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를 갖는다.

- 인과적 설명 모델 (W. 새먼, D. 루이스 등)

- 설명적 지식의 본질: 설명적 지식은 원인에 대한 지식이다.

7) David Lewis, (1986) 195. (쪽수는 다음의 선집에 실려 있는 이 논문의 쪽수를 따름. Ruben, *Explanation*.)

8) 물론 X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X가 이미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하며 따라서 일상적인 의미에서 설명과 예측은 다르다. 그러나 햐펠의 법칙적 예측 가능성 개념이 주장하는 것은 X가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설명 X가 발생한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X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특수한 종류의 예측적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가설적 예측적 지식을 의미한다.



-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 특정한 인과 이론이 채용하는 구체적인 모델들. 예컨대 D. 루이스의 인과 이론의 경우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가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이 됨.

- 통일 이론 (P. 키처)

- 설명적 지식의 본질: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적 지식은 그 현상이 지금까지 관찰된 현실 세계 안에서의 총체적 현상에 대한 가장 통일된 체계화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다.
-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 E1이 특정 추론의 전체에 나타나고 E2가 그 추론의 결론에 나타나며, 이 추론이 사례가 되는 추론 도식이 특정한 받아들여진 진술들의 집합 K에 대해서, K를 가장 잘 통일하는 추론도식들의 설명적 창고 E(K)에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받아들일 경우 전술한 “흠적 설명이론”의 정의가 만족해야 할 세 번째 조건은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 형태로 재기술될 수 있다. “흠적 설명이론”의 정의는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M) 또는 설명적 지식의 본질에 대한 개념에 관한 어떤 특징을 통해서 정의되어야 한다. 다음 절에서 필자는 “흠적 설명이론”을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이 갖는 어떤 특징을 통해서 정의할 것이다.

## II. “흠적 설명이론”의 정의

필자는 1절에서 흠적 설명이론들은 그것이 흠적 형이상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흠적 설명이론”이라고 불리며 “흠적 형이상학”으로 필자가 의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루이스의 흠적 수반 논제라고 했다. 따라서 흠적 설명이론을 정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정의 1:** 어떤 설명이론은 그 설명이론에 따를 경우 설명적 사실들 (“x가 y를 설명한다”, “x가 y에 설명적으로 유관하다”, “x는 y에 대해서 설명적으로 무관하다” 등등)이 흠적 사실의 총체적 배열에 수반할 경우 오직 그 경

**우에 한해서 흠적 설명이론으로 불린다.**

정의 1은 그러나 필자가 원하는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협소하다.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설명적 관계에는 다양한 문맥적, 인식적 요소들이 들어와 있으며 이들은 쉽게 환원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따라서 정의 1에 따르면 진지하게 고려될 가치가 있는 설명 이론들 가운데서 흠적 설명이론으로 불릴 수 있는 이론은 없게 되어서 “흠적 설명이론”의 정의가 충족해야 할 첫 번째 조건 즉, 너무 작지도 또 너무 크지도 않은 외연을 가질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정의 1이 갖고 있는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 1에서 나타나는 SHF를 설명적 사실에 적용하지 말고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 M에 적용하는 것이다.

**정의 2: 어떤 설명이론은 그 설명이론의 M에 따를 경우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의 총체가 흠적 사실의 배열에 수반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흠적 설명이론이라고 불린다.**

정의 2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인과적 설명 이론의 경우 인과 관계의 총체가 흠적 사실의 배열의 총체에 수반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흠적 설명이론이 된다. 인과적 설명이론에 따르면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는 다른 아닌 인과 관계이기 때문이다.

정의 2는 흠적 수반 논제를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적용하기 때문에 설명이론의 화용론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나 인식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 환원적으로 다루지기 힘들다는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정의 2는 “흠적 설명이론”의 정의가 설명이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특징을 통해서 정의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쉽게 충족시킨다. 따라서 필자는 이 논문에서 정의 2를 “흠적 설명이론”의 정의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의 2는 필자가 갖고 있는 의도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너무 협소하다는 인상을 준다. 예를 들어 험펠의 I-S 모델을 생각해 보자. 이 모델이 D-N 모델과 대조적으로 갖는 특징적인 성격은, 확률적 추론의 비단조적(non-monotonic) 성격 때문에, 최대 구체화조건(the requirement of maximal specificity)이라는 인식론적 개념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험펠은 “특정한 사건들을 위한 통계적 설명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받아들여진 진술들의 집합 K에 의해서 표상되는 주어진 지식 상황에 상대적이다”라고 말한다.<sup>9)</sup> 예를 들어 폐렴에 걸린 철수가 폐니실린을 맞은 후 회복되었다고 하자. 폐렴 환자가 폐니실린을 맞을 경우 회복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므로 철수가 폐니실린을 맞았다는 사실은, I-S 모델에 따를 경우, 현재의 인식 상황에서 그의 회복에 설명적으로 유관하다. 그러나 추가적인 조사 결과 철수가 감염되었던 세균이 폐니실린에 내성을 가진 세균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자. 이 추가적인 증거가 포함된 인식 상황에서 철수가 폐니실린을 맞았다는 사실은 그의 회복에 설명적으로 무관해진다. 폐니실린 내성을 가진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한 폐렴 환자에게 있어 폐니실린의 투약은 회복의 확률을 높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I-S 모델의 흥미로운 특징은 이런 인식 상황 상대성(이를 K-상대성이라고 부르자)이 설명의 인식적 요소에 대한 분석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M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이 모델은 심각하게 비실재론적이게 된다.<sup>10)</sup> 현재 지식상황에서 성립하는 x와 y 사이의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는 언제든지 보다 개선된 인식적 상황에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K-상대성은 I-S모델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키처의 통일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며 통일 이론에서도 K-상대성은 M 자체에 등장한다. 따라서 정의 2에 따를 경우 I-S모델이나 키처의 통일 이론은 “흠적 설명이론”에 포함될 수 없게 된다. 이들 이론이 필연적 연결을 부정하는 흠의 정신에 크게 영향 받아 개발된 이론이라는 점에서 이런 귀결은 대단히 만족스럽지 않다.<sup>11)</sup>

정의 2가 갖고 있는 협소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자는 “흠적 설

9) Carl Gustav Hempel, (1965) 402.

10) 여기서 “(비)실재론적”이라는 것은 “설명과 관련해서 (비)실재론적”이라는 의미다. “설명적 실재론”은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설명적 관계가 객관적인 관계라는 것을 함축하는 이론이 아니라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가 객관적 관계라는 것을 함축하는 이론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필자의 설명적 실재론에 대한 정의는 다음을 참조. 이재호, “설명적 관계의 다중구조와 설명이론의 정체성,” 19.

11) 이 흠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Wesley C. Salmon, (1989) 5; J. Woodward, “Scientific Explanation.”

명이론”과는 별개로 “준(準)흡적 설명이론”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준흡적 설명이론”을 정의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다음과 같은 우회적 요소를 첨가하는 것이다. 우선 철수가, 예를 들어, 키처의 통일 이론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가정하자. 그는 키처를 따라서 M 안에 K-상대성이 들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제 신이 인류에게 은총을 베풀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근본적인 사실들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세계가 흡적인 곳이라면 세계는 흡적 사실들만으로 구성된 거대한 모자이크일 것이며, 철수를 비롯한 인간들은 이 거대한 모자이크에 완벽한 인식적 접근을 가질 것이다.<sup>12)</sup> 만약 세계가 반흡적인 곳이라면 철수를 비롯한 인간들은 그 거대한 모자이크에 더해서 흡적 사실들 사이의 어떤 종류의 필연적 연결에 대한 인식적 접근을 가질 것이다. 열렬한 키처 이론의 지지자인 철수가 이런 신적 조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식적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만약 그가 자신이 설명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에 변화가 없었다면 갖게 될 이론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 아마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설명 이론에 K-상대성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철수가 지지하게 될 설명 이론을 “키처의 통일 이론\*”라고 부르고, 이런 인식적 환경의 개선을 통한 이론의 변화를 “\*화”라고 부르자. 따라서 기존의 인과적 설명이론의 지지자가 이런 인식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갖게 될 \*화된 이론은 “인과적 설명 이론\*”가 될 것이며, 기존에 D-N모델의 옹호자가 갖게 될 \*화된 이론은 “D-N 모델\*”이 될 것이다. \*화가 반드시 M의 내용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필요는 없다. 만약 어떤 이론 T가 그 M에 어떤 K-상대성도 갖고 있지 않다면 T\*의 M은 T의 M과 동일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T가 M에 인식적 차원을 갖는다면 따라서 중대하게 반실재론적이라면 \*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실재론적인 이론 T\*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K-상대성을 갖는 인식론적 이론들을 상당한 정도로 실재론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실재론화된 이론들을 경

12) 이 거대한 모자이크는 키처가 이상적 흡적 총체(ideal Hume corpus)라고 부른 것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Philip Kitcher, (1989) 495.

유해 다음과 같이 “준흠적 설명이론”을 정의할 수 있다.

**정의3:** 어떤 설명이론 T는 그것의 \*화된 이론 T\*의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의 모델 M에 따를 경우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의 총체가 흠적 사실의 총체적 배열에 수반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범(汎)흠적 설명이론이라 불린다. 그리고 어떤 설명이론은 그것이 범흠적 설명이론에 포함되지만 흠적 설명이론은 아닐 경우 준흠적 설명이론이라고 불린다.

정의3에 따를 경우 (확률에 대한 흠적 개념과 결합한) I-S모델이나 키처의 통일 이론같이 K-상대성을 갖는 이론들은 비록 흠적 설명이론은 아니지만 준흠적 설명이론에 포함된다.<sup>13)</sup> 그러나 정의 3 역시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 어떤 설명이론은 그것이 (필연적 연결에 대한 언급이 설명 이론에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환원적이지만 M 속에 화용론적인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정의 2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좁은 의미에서 환원적이지 않을 수 있다. 정의 3에 등장하는 “\*화”는 원래의 M 속에 들어 있는 인식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지만 화용론적 요소를 제거해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원래의 M 속에 있는 화용론적 요소를 제거해줄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는 상당히 현실적인 우려이다. 예를 들어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가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라고 가정해 보자.<sup>14)</sup> 표준적인 루이스-스톨나이커식의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 분석에서 핵심적인 것은 “최근접세계”라는 개념이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C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E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대략적으로 말해서 C가 발생하지 않은 현실세계에 대한 최근접 세계에서 E도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오직 이 경우에만 참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C가 발생하지 않은 현실세계에 대한 최근접 세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많은 철학자들은 이것이 심각한 정도로 문맥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sup>15)</sup> 이 경우처럼 어떤 설명 이론은 그것의 M 속에 화용론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의 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

13) 이 결론은 다소 성급한데 그 이유는 나중에(주22) 밝혀질 것이다.

14) 이런 이론의 예는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우환, (2002).

15)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의 문맥 의존성에 대한 논의의 예는 다음을 볼 것. Peter Menzies, (2004); Cei Maslen, (2004).

요가 있다.

**정의 4:** 어떤 설명이론 T는 그것의 \*화된 이론 T\*의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의 모델 M에 따를 경우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의 총체가, 어떤 설명적 문맥이 주어질 경우, 함적 사실의 총체적 배열에 수반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범함적 설명이론이라 불린다. 그리고 어떤 이론은 그것이 범함적 설명이론에 포함되지만 함적 설명이론은 아닐 경우 준함적 설명이론이라고 불린다.

이제 우리는 20세기 후반기에 제안된 주요 설명이론들 가운데 어떤 종류의 필연적 연결도 언급하지 않는 모든 이론을 “함적 설명이론” 또는 “준함적 설명이론”의 범주에 포괄시킬 수 있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2와 정의 4에 따를 경우 (범칙에 대한 규칙성 이론과 결합된) 햐펠의 D-N모델, (확률에 대한 함적 접근을 받아들이는 확률 개념과 결합된) 새먼의 S-R 모델, (인과에 대한 함적 접근을 받아들이는 인과 개념과 결합된) 인과적 설명 모델은 모두 “함적 설명이론”이며 (확률에 대한 함적 접근과 결합된) 햐펠의 I-S 모델과 키처의 통일 모델은 준함적 설명이론이 된다.<sup>16)</sup>

이제 “준함적 설명이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필자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다 정확히 기술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분석철학적 전통 하에서 제안된 대부분의 주요 설명이론들이 함적 설명이론 아니면 준함적 설명이론인데, 지금까지 제안된 함적 설명이론들은 모두 잘못된 이론이며 나아가 지금까지 제안된 준함적 설명이론들을 “\*화”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함적 설명이론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다.<sup>17)</sup>

16)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나중에(주22) 논의 되듯이 이 결론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17) 준함적 설명이론들의 함적 설명이론화된 형태들이 실패한다는 것이 바로 준함적 설명이론이 실패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준함적 설명이론들의 함적 설명이론화된 형태들이 실패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철학적 의미를 갖는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K-상대성과 같은 개념이 M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동기는 주로 설명이 갖는 네 개의 차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우리가 설명의 화용론적 요소와 인식적 요소가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는 정도로 준함적 설명이론들과 같은 비실재론적인 설명이론들이 갖는 동기는 약화되며, 그만큼 준함적 설명이론의 옹호자들은 이것의 실재론화된 형태에 대해서 동기를 갖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 절의 논의를 통

### III. 흡적 설명이론의 형이상학적 전제

이 절에서 필자는 “흡적 설명이론”의 실제 사례들, 그리고 “준흡적 설명이론”의 실제 사례들의 실재론화된 (즉, 흡적 설명이론화된) 형태들이 특정한 형이상학적 전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필자의 정의에 따를 경우 흡적 설명이론들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설명적 관계가 흡적 사실들의 배열에 수반한다는 것이다.<sup>18)</sup> 이는 설명과 관련한 SHF논제이다(이를 “SHF-E”라고 부르자).<sup>19)</sup> 필자가 이 절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SHF-E를 받아들여온 사람들은 NNC역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필자는 이것 보다 더 강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필자의 생각에 따르면 SHF-E는 **자체로** NNC를 전제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강한 주장은 이 논문에서, 비록 그것이 강하게 암시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옹호되는 주장은 아니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안된** 흡적 설명이론들의 옹호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제안된** 준흡적 설명이론들의 실재론화된 형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NNC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 논문이 갖고 있는 하나의 전제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 같다. SHF-E를 주장한 사람들이 NNC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는 하나의 방법은 NNC가 필연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필연적 연결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 가능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이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자. 그럴 경우 당연히 SHF-E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NNC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

---

해서 실재론화된 준흡적 설명이론에 동기를 부여하고 다음절의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동기부여된 준흡적 설명이론의 실재론화된 형태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 18) 앞 절의 논의를 따라온 사람들은 이 표현이 얼마나 엄밀하지 못한 표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미 “흡적 설명이론”에 대한 정교한 정의를 제공한 바 있으므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는 “설명적 관계가 흡적 사실들의 배열에 수반한다”와 같은 부정확한, 하지만 단순하고 직관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 19) 다시 한번 논의의 단순성을 위해 엄밀성을 포기하면서, 이후의 논의에서 필자는 “흡적 설명이론”과 “SHF-E”를 상호 교환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은 특별히 흥미로운 귀결은 아니다. 필연적 연결이 가능하지 않다면 SHF-E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건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건 NNC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이런 흥미롭지 않은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후의 논의에서 필자는 NNC는 필연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것, 즉 필연적 연결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필자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흠적 설명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필연적 연결이 가능한 것이라도** 이 세계에 필연적 연결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sup>20)</sup>

이후의 논의의 편이를 위해 두 개의 가능세계를 상정하기로 하자. 첫 번째 세계(w1)에는 두 개의 속성(F, G)만이 존재하는데, F와 G는 각각 다수의 사례를 갖고 규칙성,  $(x)(Fx \rightarrow Gx)$ 을 보인다. w1은 그 안에 어떤 종류의 필연적 연결도 존재하지 않는 흠적인 세계라고 가정하자. 두 번째 세계(w2)는 다른 점에서는 w1과 완전히 동일하지만 하나의 암스트롱적인 필연화 관계, N(F,G)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이다.<sup>21)</sup> 암스트롱의 이론에 따르면 필연화 관계 N(F,G)와 F와 G 사이에 나타나는 규칙성은 전적으로 구분되는 것이지만 이들 사이에는 필연적 연결이 존재하므로 w2에는 어떤 종류의 필연적 연결이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w2는 반흠적인 세계이다.

이제 지금까지 제안된 각각의 흠적 설명이론들, 그리고 준흠적 설명이론

20) H. 비비는 인과와 관련해서 흠적 인과 개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도 세계에 필연적 연결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설명 개념과 인과 개념이 갖는 밀접한 연결을 생각한다면 이 논문에서의 필자의 논변은, 특히 인과적 설명이론과 관련한 필자의 논변은, 비비의 이런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필자는 설명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므로 비비의 이런 주장은 자세히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비비의 주장은 다음의 논문(특히 2절)을 볼 것. H. Beebe, (2006).

21) 암스트롱의 필연화 관계 N은 일차 보편자들을 지배하는 이차 보편자(second order universal)로 암스트롱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자연법칙이다. 암스트롱의 자연법칙에 대한 이론은 다음을 볼 것. D. M. Armstrong, (1983). 필자는 여기서 논의의 단순성을 위해서 암스트롱적인 형태의 필연적 연결을 사용하지만 적절한 변화를 주어서 다른 형태의 필연적 연결, 즉 성향 본질주의자들이 받아들이는 필연적 연결을 사용해서 예를 만들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든 필자가 앞으로 할 주장을 뒷바침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 성향 본질주의자들의 이론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Alexander Bird, (2007); B. Ellis and C. Lierse, (1994); B. D. Ellis, (2001).



의 실재론화된 형태들이 왜 NNC를 전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앞으로 분명해질 이유 때문에 시대적 순서와는 다르게 키처의 통일 이론에서부터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키처의 이론이 준흠적 설명이론이므로 여기서 고려되는 것은 이 이론의 \*화된 형태, 즉 키처의 이론\*이다. 필자가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의 세계가  $w_2$ 와 같은 세계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 키처의 통일이론\*의 지지자는  $N(F,G)$ 와 같은 것이 충분히 강력한 통일하는 힘을 갖는다고 생각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만약  $N(F,G)$ 가 충분히 강력한 통일적 힘을 갖는다면 키처의 이론\*의 옹호자는  $N(F,G)$ 가 설명적 힘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따라서 우리 세계에서 SHF-E가 참이라는 것을 부정해야 한다.

$N(F,G)$ 가 통일하는 힘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N(F,G)$ 와  $F_a$ 로부터  $G_a$ 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 도출패턴은  $G_b, G_c$ 등의 도출에도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N(F,G)$ 가 충분히 강력한, 즉 **최고의** 통일하는 힘을 갖느냐는 것이다. 키처의 이론에서는 1등, 즉 최고의 통일하는 힘을 가진 추론 체계만이 설명적 힘을 갖는다. 그런데  $w_1$ 과  $w_2$ 와 같이 하나의 규칙성만 나타나는 단순한 세계에서 여러 개의 추론 도식이 체계를 이뤄 존재할 이유는 없으므로 최선의 추론 체계가 무엇이냐의 문제는 단순히 최고의 통일하는 힘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가 된다. 필자는  $w_2$ 에서 최고의 통일하는 힘을 갖는 것은 규칙성, 즉  $(x)(Fx \rightarrow Gx)$ 가 아니라 필연화관계  $N(F,G)$ 라고 생각한다. 만약 규칙성이 최고의 통일하는 힘을 갖는다면 그 규칙성 자체는 규칙성에 의해서 통일되지 않는다.  $w_1$ 과 같은 세계에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원적인 규칙성은 설명되지 않는 원초적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w_2$ 와 같은 세계에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N(F,G)$ 로부터  $(x)(Fx \rightarrow Gx)$ 가 도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w_2$ 에서  $(x)(Fx \rightarrow Gx)$ 를 원초적 사실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w_2$ 에서  $N(F,G)$ 가 근원적인 통일자라고 본다면 우리는  $N(F,G)$ 만 원초적 사실이라고 보면 되지만  $(x)(Fx \rightarrow Gx)$ 가 근원적인 통일자라고 본다면 우리는  $N(F,G)$ 와  $(x)(Fx \rightarrow Gx)$ 가 모두 원초적 사실이라고 봐야 한다. 이는  $w_2$ 에서  $N(F,G)$ 가  $(x)(Fx \rightarrow Gx)$ 보다 더 큰 통일하는 힘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키처의 통일 이론\*의 옹호자는 우리의 세계가  $w_2$ 와 같은 세계라는 것이 밝혀지면  $N(F,G)$ 와 같은 것이 설명적 힘을 갖는다는 것을 바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N(F,G)$ 가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면 더 이상  $(x)(Fx \rightarrow Gx)$ 와  $Fa$ 를 통해서  $Ga$ 를 도출하는 것은 설명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야 한다. (키처의 이론에서는 1등만이 설명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사실은 키처 이론\*의 옹호자는 NNC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리세계에서의 근본적인 규칙성이 어떤 설명적 힘을 갖는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키처의 이론\*은 NNC에 대한 숨은 전제를 갖고 있는 이론이다.<sup>22)</sup>

다음으로 (법칙에 대한 규칙성 개념과 연결된) 험펠의 D-N 모델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D-N 모델의 경우 설명적 지식의 본질은, 1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법칙적 예측 가능성(nomic expectability)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다른 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자가 후자에 대해 법칙을 통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느냐의 문제가 된다. 이제  $w_2$ 에서  $Fa$ 가  $Ga$ 에 설명적으로 유관한지를 묻도록 하자. 물론 험펠의 옹호자들은 여기에 설명적 유관성 관계가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들은 아마도 F와 G 사이에 규칙성이 성립하고 그 규칙성을 법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Fa$ 는  $Ga$ 에 예측적으로 유관하고 따라서 설명적으로도 유관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을 대답 1이라고 하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른 대답, 즉 F와 G 사이에 필연화 관계가 성립하고 있으므로  $Fa$ 는  $Ga$ 에 예측적으로 유관하고 따라서 설명적으로 유관하다는 대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을 대답 2라고 하자.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설명적 지식이 예측적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22) “키처의 이론\*”가 NNC에 대한 숨은 전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다소 오도적인 표현일 수 있다. 키처의 이론\*은 자체로는 필연적 연결의 존재와 부존재에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키처의 이론\*의 옹호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w_1$  과 같은 세계에서  $(x)(Fx \rightarrow Gx)$ 가  $Ga$ 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동시에  $w_2$ 에서는 전자가 후자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키처의 이론\*가 자체로 NNC에 숨은 전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에서 설명을 위해 필연적 연결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키처의 이론\*의 옹호자, 즉 우리 세계에서 키처의 이론\*이 휴적 설명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NNC를 전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필자가 앞에서(주13과 주16) 키처의 이론이 준휴적 설명이론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 이유이다.

들이 대답 1이 대답2보다 더 좋은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는 아니다.

필자는 그렇게 말할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대답 2가 대답 1보다 더 좋은 대답이라고 말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두 개의 이유가 있다. 우선 “법칙적 예측 가능성”에서 “예측 가능성”에 방점을 두어 생각해 보자. 설명 이론에 관한 한 햄펠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J. 밀의 견해가 현재의 문맥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sup>23)</sup> 밀은, “모든 삼단논법은 그것이 결론을 증명하려는 논변으로 생각될 경우 논점 선취를 한다”<sup>24)</sup> 라고 말하는데, 이는 밀이 규칙성으로부터의 어떤 연역적 논변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는 것이 애초부터 가능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설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필자의 용어를 통해서 표현하면, 밀이 햄펠과 대단히 유사한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즉 법칙 연역적 모델)을 갖고 있었지만 햄펠과는 전혀 다른 설명적 지식의 본성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루벤은 밀은 설명이 왜 -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패턴 인식하고만 관련이 된다는 다운그레이드된 설명개념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sup>25)</sup> 밀의 다운그레이드된 설명 개념이 진정한 의미의 설명 개념인지는 자체로 흥미로운 문제이지만 필자가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아니다. 필자가 밀의 사례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햄펠의 D-N모델은 그것이 법칙에 대한 규칙성 이론과 결합되어 있는 한 그것의 M과 그것의 설명적 지식의 본질에 대한 개념 사이에 심각한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긴장이 존재하는 한 예측적 도입에 설명적 도입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설명 1이 설명 2보다 나은 대답이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적어도 설명 2의 경우에는 피설명항 자체가 설명항 안에 포함되어

23) 밀은 설명에 대해서, 햄펠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설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의 법칙을 원인의 법칙으로부터 도출하는 연역적 작용 ... 어떤 개별적인 사실은 그것의 원인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즉 그 사실의 산출이 하나의 사례가 되는 법칙 또는 인과의 법칙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된다고 일컬어진다. John Stuart Mill, (1963) 464.

24) Ibid., 184.

25) David-Hillel Ruben, (1990) 137.

있지는 않기 때문에 논점 선취의 문제에서는 보다 자유롭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칙적 예측 가능성”에서 “법칙적”에 방점을 두고 생각해 보자. 앞의 키처의 통일 이론에 대한 논의는 왜 D-N 모델의 지지자들이 대답 2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준다. 많은 철학자들은 키처의 통일 이론과 법칙에 대한 규칙성 이론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밀-램지-루이스식의 법칙 이론 사이에 중요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밀-램지-루이스식의 법칙은 키처적인 의미에서 설명적 힘을 갖는다고 주장한다.<sup>26)</sup> 밀-램지-루이스의 이론에 따르면 어떤 세계에서 자연 법칙이란 것은 그 세계에서 참인 문장들에 대한, 단순성과 강도에 있어서 최적의 밸런스를 갖는 공리화된 연역 시스템에서 공리나 높은 단계의 정리에 해당되는 것이다.<sup>27)</sup> 여기서 루이스적인 의미에서 최적화된 연역 시스템은 키처적인 의미에서 최고의 통일성을 갖는 체계화와 (이들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sup>28)</sup> 그렇다면 우리가 키처의 통일 이론\*을 받아들일 경우 w2에서 (x)(Fx → Gx)가 아니라 N(F,G)가 최고의 통일적 힘을 갖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정도로 우리가 루이스의 법칙 이론을 받아들일 경우 w2에서 (x)(Fx → Gx)가 아니라 N(F,G)가 법칙이라고 봐야 한다.<sup>29)</sup> 밀-램지-루이스 이론이

26) 이런 주장의 예로는 다음을 볼 것. Stathis Psillos, (2002) 177; Loewer, “Humean Supervenience,” 114.

27) David Lewis, (1973) 73.

28) 실제로 키처는 자신의 통일 이론을 설명에 대한 체계화 접근(systematization approach)이라고도 부른다. Kitcher, “Explanatory Unification and the Causal Structure of the World,” 431. 이런 체계화로써의 통일은, M. 프리드만적인 의미에서의 통일 개념, 즉 근원적인 현상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서의 통일과는 달리 밀-램지-루이스적인 공리화된 연역 시스템과 대단히 유사한 개념이다.

29) 루이스 자신은 물론 N(F,G)와 같은 것이 이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w2와 같은 세계를 가능세계로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답변1과 답변2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나은 답이냐는 질문은 그에게는 무의미한 질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법칙은 규칙성 이상의 어떤 것이 될 수 없는데, 그것은 규칙성이 반홉적인 세계에서도 최선의 체계화의 정리로 생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반홉적인 세계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맥락에서 w2가 가능한 세계라는 전제 하에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루이스의 암스트롱의 법칙 개념에 대한 생각은 다음을 볼 것. David Lewis, (1983) 366.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규칙성 법칙 이론이라는 것이 주어질 경우 D-N 모델의 옹호자들은 대답2가 대답 1보다 더 나은 대답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햄펠의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w2와 같은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여전히 자신의 원래 이론을 고수하기는 힘들게 될 것이다. 이는 햄펠의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론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w2와 같은 세계이기 보다는 w1과 같은 세계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칙에 대한 규칙성 이론과 결합된) 햄펠의 이론은 우리의 세계가 w1과 같은 세계라는 사전적인 전제 위에서만 옹호의 전망이 있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과에 대한 흠적 접근과 결합된 인과적 설명 이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다시 한번 우리의 질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w2와 같은 세계라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원래 이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질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N(F,G)와 같은 필연화 관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 필연화 관계는 인과적 관계의 분석에 아무런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

N. 홀이 지적하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건) 인과 개념에는 두 개의 근본적인, 하지만 구분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의존성(dependence)이고 다른 하나는 산출(production)이다.<sup>30)</sup> 의존성이라는 아이디어는 반사실적 의존성, 또는 확률의 증가(probability raising) 개념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에 기반한 인과 이론들은 루이스식의 반사실적 의존성을 통한 인과 분석이나 다양한 인과에 대한 확률적 접근 등이 해당된다. 반면 홀이 지적하듯이 산출이라는 개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환원적으로 분석하기는 매우 어려운 개념이다.<sup>31)</sup> 하지만 W.새

30) Edward J. Hall, (2004) 225.

31) 이런 이유로 스트로슨은 산출로서의 인과 개념은 흠주의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인과 개

면이나 P.도우의 인과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의존성 개념보다는 산출 개념에 의존해 인과에 대한 환원적 분석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 두 개념 가운데서 인과적 설명이론을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호할 이론은 단연 의존성 개념이다. 의존성 관계는 있으나 산출 관계는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부재(absence) 사례이다. 조선시대에 태어났던 철수가 어린 나이에 폐렴으로 죽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당시에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가 존재했었다면 철수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항생제의 부존재와 철수의 사망 사이에는 의존성 관계가 있다. 그러나 항생제의 부존재가 철수의 죽음을 산출한 것은 아니다. 부존재가 어떤 것을 산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산출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최소한 어떤 적절한 문맥이 주어질 경우)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폐렴으로 죽어 나간 것은 당시에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식의 설명은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sup>32)</sup>

인과적 설명이론을 옹호하려면 인과 분석을 의존성에 기초시켜야 한다는 것을 받아 들이자. 그럴 경우 위의 w2에서  $N(F, G)$ 가 인과관계의 분석에 유관하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반사실적 조건문에 대한 표준적인 해석인 루이스-스톨네이커식의 의미론에 따르면 결과 E가 원인 C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말해서, C가 발생하지 않은 최근접 세계에서 E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33)</sup> 여기서 “최근접 세계”라는 개념

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G. Strawson, (1987) 256.

- 32) 이런 이유로 산출 개념에 기반한 환원적 인과 분석을 제공하려는 도우는 “준-인과(quasi-causa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종종 어떤 것은 다른 것을 인과하지는 못하지만 준인과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P. Dowe, (2001) 217. 이는 명백한 인과적 설명이론의 포기이다. 이런 도우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산출 개념에 기반한 환원적 인과 분석은 인과적 설명이론을 포기할 경우에 옹호 가능한 이론이라는 것이다.
- 33) 여기서는 의존성 개념을 반사실적 의존성 개념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 의존성 개념을 확률 증가 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확률 증가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 반사실적 의존성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J. 쉐퍼는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의존성 분석과 확률적 분석은 (최소한 비결정론적 인과의 경우) 수렴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확률적 분석이 루이스의 (비결정론적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의존성 개념을 통

이 중요한데 이는 세계들 사이에서의 유사성 개념에 의존한다. 그리고 세계 사이의 유사성 개념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법칙 개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어떤 세계가 다른 세계와 유사한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칙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이스-스톨네이커식 의미론에 따를 경우 반사실적 의존성 개념은 법칙에 대한 개념에 의존한다. 그리고 법칙에 관한 가장 강력한 흠적 이론으로 평가 받는 것은 밀-램지-루이스 이론이다. 그런데 이미 확인한 바 있듯이, 밀-램지-루이스 이론의 신봉자들은  $w_2$ 에서  $N(F, G)$ 가 법칙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w_2$ 에서 인과 관계의 분석에서  $N(F, G)$ 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성 개념에 따를 경우 우리가 환원주의적 인과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세계가  $w_2$ 와 같은 세계가 아니라  $w_1$ 과 같은 세계라는 전제 하에서이다.

마지막으로 햄펠의 I-S 모델\*이나 새먼의 S-R모델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sup>34)</sup> 이들의 경우 공히 설명적 연관성의 핵심은 확률 증가(probability raising) 관계의 존재 여부이다.<sup>35)</sup> 따라서 우리의 질문은 필연화 관계가 확률 증가와 연관하냐는 것이 된다. 필자는 이 질문은 사실상 우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것이 다른 것의 발생을 필연화하는데 그것의 발생 확률을 높일 수는 없다는 것은 자체로 모순적인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N(F, G)$ 와 같은 것은 설명적으로 연관한 요소가 된다.

---

해서 가장 잘 포착된다고 주장한다. J. Schaffer, (2001) 77. 설명 확률 증가가 반사실적 의존성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논의될 I-S 모델이나 S-R모델의 경우를 생각하면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 34) I-S모델이 준흠적 설명이론이므로 우리는 여기서 I-S 모델 대신에 I-S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
- 35) 새먼의 S-R모델의 경우, I-S모델과는 달리, 확률의 증가 뿐만 아니라 확률의 감소도 설명적으로 연관하다. 그러나 이 차이가 현재의 문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 IV. 결론

앞 절의 논의를 통해서 필자가 드러내고자 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만약 설명의 핵심이 법칙적 예측 가능성에 있다면 필연적 연결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설명적으로 유관하다. (D-N 모델)
- 만약 설명의 핵심이 확률적 증가에 있다면 필연적 연결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설명적으로 유관하다. (I-S 모델, S-R 모델)
- 만약 설명의 핵심이 인과에 있다면 필연적 연결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설명적으로 유관하다. (인과적 설명이론)
- 만약 설명의 핵심이 통일에 있다면 필연적 연결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설명적으로 유관하다. (키치의 통일 이론)

이들이 모두 맞다면 지금까지 제안된 주요 흠적 설명이론들과 준흠적 설명이론의 실재론화된 형태들은 모두 현실 세계에 필연적 연결은 없다는, 즉 NNC가 참이라는 사전적 전제를 갖고 있는 이론들이다. 물론 이것이 흠적 설명이론은 자체로 NNC를 전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제안된 흠적, 또는 준흠적 설명이론들과는 전혀 다른 설명적 지식의 본질에 대한 개념을 갖는 흠적 설명이론의 가능성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열려 있으며, 그런 개념에 따를 경우 필연적 연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설명에 무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다. 우리가 (흠적 설명이론 또는 준흠적 설명이론으로 제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설명 개념들, 예컨대 조작으로서의 설명 개념들이나 차이를 만들어 내는(make difference) 것으로서의 설명 개념들을 동원해도, 비록 여기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필연적 연결은 설명적으로 유관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떠나 단지 선이론적인 직관만으로도 필연적 연결은, 만약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설명적으로 너무나 유관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sup>36)</sup>

36) 조작으로서의 설명개념을 사용하는 사례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James Woodward, (2003).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찾아내는 것으로서의 설명 개념을 사용하는 사례는 다음을 참고할 것. Michael Strevens, (2008). 우드워드와 우드워드와의 경우 명시적으로 반흠적인



따라서 필자는 흠적 설명이론은 흠적 형이상학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형이상학과 거리를 둔 채 흠적 설명이론을 만들려는 험펠적인 아이디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sup>37)</sup> **모든 흠적 설명이론은 은폐된 형이상학적 주장을 담고 있다.**

이 논문을 마치면서 필자는 특정한 형이상학과와 이런 사전적인 전제관계가 반흠적 설명이론에도 불가피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순진한 반흠적 설명이론을 하나 상정해 보자. 우선 법칙에 대한 암스트롱의 견해를 받아들여 법칙이 필연화 관계 N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이를 D-N모델과 결합해 보자. 그럴 경우 우리는 N(F,G)와 Fa를 통해서 Ga를 도출하는 것은 설명적이지만 (x)(Fx → Gx)와 Fa를 통해서 Ga를 도출하는 것은 설명적이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 전자의 도출에는 법칙이 동원되었지만 후자의 도출에는 법칙이 동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반흠적 설명이론을 받아들이는 철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N(F,G)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흠적인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철수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설명이론을 수정해야 하는가? 필자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세계가 설명이 가능한 세계라는 것은 선험적인 진리가 아니다. 실제로 과거의 어떤 철학자들은 과학적 설명이라는 것은 없다고 진지하게 주장하기도 했다.<sup>38)</sup> 그렇다면 철수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태도는 자신이 갖고 있던 설명 개념을 유지하면서 우리 세계가 마치 설명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를 오도하는 극도로 기만적인 세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철수는 우리 세계에서 법칙으로 보이는 것들이 사실 알고 봤더니 단순한 우연(coincidence)일 뿐이며 그런 우연적 규칙성은 어떤 설명적 힘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철수가 이런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분명 하나의 가능한 태도이

---

태도를 취하며 스트레븐스의 경우 흠주의 vs. 반흠주의 논쟁과 관련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이들의 이론들은 모두 흠적 설명이론 또는 준흠적 설명이론으로 분류될 수 없다.

37) 험펠의 프로젝트가 갖는 이런 특징은 다음의 논문에 잘 설명되어 있다. J. Kim, (1999).

38) P. 두헴이 대표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 철학자이다. Pierre Maurice Marie Duhem, (1954).

다. 바로 이 점이 흠적 설명이론과 반흠적 설명이론 사이의 중요한 비대칭성이다. 요약하면 이 세계가 흠적 세계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반흠적인 설명이론을 갖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이 세계에서 어떤 종류의 규칙성도 없다면 반흠적인 설명이론을 갖는 사람은 이 세계가 반흠적인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필연적 연결의 존재가 규칙성의 존재를 함축하므로 규칙성의 부재는 필연적 연결의 부재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흠적인 설명이론은 필연적 연결의 존재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전제도 갖고 있지 않다. 반흠적인 설명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필연적 연결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관찰된 규칙성이라는 경험적 증거 때문이지 그 설명 이론 자체가 필연적 연결의 존재에 대한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이에 반해서, 앞 절의 논의에 따르면, 이 세계가 반흠적인 세계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흠적인 설명이론을 갖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어떤 증거의 유무와 무관하다. 예를 들어 이 세계에 어떤 관찰된 규칙성도 없다고 해보자. 흠적 설명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계에 필연적 연결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대로 이 세계에 많은 규칙성들이 관찰된다고 하자. 여전히 흠적 설명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세계에 필연적 연결은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필연적 연결의 유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실상 유일한, 관찰적 증거가 관찰된 규칙성이므로 이 사실은 흠적 설명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NNC에 대한 전제는 관찰적 증거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야말로 **사전적인** 전제 이상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필자는 흠적 설명이론과 반흠적 설명이론 사이의 이 비대칭성이 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함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후속 논문에서 핵심 주제가 될 것이다.

투 고 일: 2013. 03. 19.  
 심사완료일: 2013. 06. 20.  
 게재확정일: 2013. 06. 21.

이재호  
 국민대학교

## 참고문헌

- 선우환. (2002)“설명의 반사실 조건문적 의존 모형.” *철학연구* 59: 93-119.
- 이재호. (2012)“설명적 관계의 다중구조와 설명이론의 정체성.” *과학철학* 15, no. 2: 1-24.
- Armstrong, D. M. (1983)*What Is a Law of Nature?*, Cambridge Studies in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shir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ebe, H. (2006)“Does Anything Hold the Universe Together?” *Synthese* 149: 509-33.
- Bird, Alexander. (2007)*Nature's Metaphysics: Laws and Properties*: Oxford University Press.
- Dowe, P. (2001)“A Counterfactual Theory of Prevention and ‘Causation’ by Omission.”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9, no. 2: 216-26.
- Duhem, Pierre Maurice Marie. (1954)*The Aim and Structure of Physical The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arman, John, and John T. Roberts. (2005)“Contact with the Nomic: A Challenge for Deniers of Humean Supervenience About Laws of Nature Part I: Humean Supervenience.” *Philosophy & Phenomenological Research* 71, no. 1: 1.
- Earman, John, and John T. Roberts. (2005)“Contact with the Nomic: A Challenge for Deniers of Humean Supervenience About Laws of Nature Part II: The Epistemological Argument for Humean Supervenience.” *Philosophy & Phenomenological Research* 71, no. 2: 253.
- Ellis, B. D. (2001)*Scientific Essentialism*, Cambridge Studies in

- Philosophy. Cambridge, U.K.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lis, B., and C. Lierse. (1994)“Dispositional Essentialism.”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2, no. 1: 22-45.
- Hall, Edward J. (2004)“Two Concepts of Causation.” In *Causation and Counterfactuals*, edited by John David Collins, Edward J. Hall and L. A. Paul, 225-76. Cambridge, Mass.: MIT Press.
- Hempel, Carl Gustav. (1965)“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In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and Other Essay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333-496. New York,: Free Press.
- Kim, J. (1987)“Explanatory Realism, Causal Realism, and Explanatory Exclusion.”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12: 225-39.
- \_\_\_\_\_. (1999)“Hempel, Explanation, Metaphysics.” *Philosophical Studies* 94, no. 1-2: 1-20.
- Kitcher, Philip. (1989)“Explanatory Unification and the Causal Structure of the World.” In *Scientific Explanation*, edited by Philip Kitcher and Wesley C. Salmon, 410-505.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Lewis, David. (1986)“Causal Explanation.” In *Philosophical Papers*, 214-4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David. (1973)*Counterfactuals*. Oxford,: Blackwell.
- Lewis, David. (1983)“New Work for a Theory of Universal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61, no. 4: 343-77.
- Lewis, David. (1986)*Philosophical Papers*. Vol.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oewer, Barry. (1996)“Humean Supervenience.” *Philosophical Topics* 24, no. 1: 101-27.
- Maslen, Cei. (2004)“Causes, Contrasts, and the Nontransitivity of Causation.” In *Causation and Counterfactuals*, edited by John

- David Collins, Edward J. Hall and L. A. Paul, 341-57: MIT.
- Menzies, Peter. (2004)“Difference-Making in Context.” In *Causation and Counterfactuals*, edited by John David Collins, Edward J. Hall and L. A. Paul, 139-80: MIT.
- Mill, John Stuart. (1963)*A System of Logic*. 33 vols, Collected Work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Psillos, Stathis. (2002)*Causation and Explanation*, Central Problems of Philosophy.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Ruben, David-Hillel. (1990)*Explaining Explan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Ruben, David-Hillel. (1993)*Explanation*, Oxford Readings in Philosophy.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almon, Wesley C. (1989)“Four Decades of Scientific Explanation.” In *Scientific Explanation*, edited by Philip Kitcher and Wesley C. Salmon, xiv, 528 p.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chaffer, J. (2001)“Causes as Probability Raisers of Processes.” *Journal of Philosophy* 98, no. 2: 75-92.
- Strawson, G. (1987)“Realism and Causation.” *Philosophical Quarterly* 37, no. 148: 253-77.
- Strevens, Michael. (2008)*Depth : An Account of Scientific Explan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Woodward, J. (2010 Spring),“Scientific Explanation.” I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ited by Edward N. Zalta, 2010 Spring.
- Woodward, James. (2003)*Making Things Happen : A Theory of Causal Explanation*, Oxford Studies in Philosophy of Sci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 Humean Theories of Explanation and Their Metaphysical Commitment

Lee, Jae-Ho

In this paper, I argue two things. First, I argue that most major theories of explanation developed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are either “Humean theories of explanation” or “quasi - Humean theories of explanation.” Second, I argue that both the proposed Humean theories of explanation and the realism versions of the proposed quasi - Humean theories of explanation are committed to the Humean metaphysical picture which denies the existence of a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wholly distinct facts. After that, I argue that anti-Humean theories of explanation do not have such a metaphysical commitment.

**Keywords:** explanation, Humean theories of explanation, Humean metaphysics, necessary connection